

##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주님 안에서 늘 사랑의 소식을 보내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렇게 서신으로 교제하게 된 것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성도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구원의 길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원이란 죄의 결과, 즉 고통과 저주, 죽음과 심판에서 헤어날 수 없는 삶에서 구출하여 주는 것을 뜻합니다. 말하자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에서 석방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구원받아야 할 이유는 세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의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는 당신은 집값으로 인하여 언젠가는 반드시 죽기 때문입니다. 셋째로는 당신이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철학이나 선행, 고행, 도덕적 삶 등으로는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천지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의 방법에만 있는 것입니다. 이제 순전히 당신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어 놓으신 놀라운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혹시 이 편지를 받는 분 중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구원관을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 첫째 진리 :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 하나님은 온 천지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 1:1)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창 1:27)

- 하나님은 만물을 사람에게 주셨고 다스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사람을 거기고...』 (창 1:28)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온 천지를 만드신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사람에게 맡겨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축복과 평화와 기쁨과 소망 등 모든 것을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완전한 삶을 누리고 못하고 불안과 절망, 죄와 악의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 둘째 진리 : 사람이 죄에 빠져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어 모든 축복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람이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아담)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렸고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12)

● 그리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생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이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로마서 1:28)

☞ 셋째 진리 :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와 사망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서, 죄로 인하여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을 대신하여 죽게 만들 분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써 막혀 있던 죄의 담을 허무시고 죄로 인하여 들어왔던 불안, 근신, 절망, 죽음, 고통 등을 모두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16)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사도행전 4:12)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23)

☞ 넷째 진리 :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친히 세상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셨지만, 사람은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다만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이며 주인으로 마음 속에 영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영접하는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12)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로마서 10:9)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4:15)

이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드리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혼자 있을 곳을 찾으셔서 그 자리에 조용히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리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거슬러 왔고 무관심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제 마음대로 살아 온 잘못된 생활에서 돌아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믿고 저의 주인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제 마음에 오셔서 새사람이 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면 성도님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기도는 당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한 것이고, 하나님을 떠났던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를 한 것이며, 성도님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며, 이러한 모든 사실을 받아들임으로써 성도님 인생의 주인을 성도님 자신에서 주 예수께로 드리기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제 성도님에게 진정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위의 신앙 고백을 하였다면 당신은 구원받은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갓 태어난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 품 안으로 들어오면 잔치를 벌이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기쁨과 감사의 신앙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주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간략한 기독교 용어 해설

- 중생 -

중생이란 '다시 태어남', '거듭남', '새로 태어남' 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중생이란 하나님 앞에 죽어서 마귀의 종이 되었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 부활을 말합니다. 중생은 인간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가능한데, 중생은 내적인 변화이므로 신체적으로 느낄 수는 없으나 사람의 심령 가운데 변화를 일으켜 믿을 수 없는 사실들을 믿는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중생의 증거는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나아갈 마음으로 나타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 그 사실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b>예 배 안 내</b>	<b>주 일 예 배</b>	1부 예배 : 오전 9시
		2부 영어 예배 : 오전 9시 (2층)
		3부 예배 : 오전 11시
		유*초등부 예배 : 오전 11시
		중*고등부 예배 : 오전 11시
	<b>기 타 예 배</b>	새벽 기도회 (매일) 오전 6시
		수요 삼일 예배 저녁 8시 30분
		금요 찬양 기도회 저녁 8시 30분
		중*고등부 금요 찬양예배 저녁 8시 30분
	<b>정 기 모 임</b>	화요일 / 한어 대학*청년부(영) 저녁 8시
		토요일 / 영어 대성경 공부(한) 오후 5시
		토요일 / 청소년 성경공부 저녁 8시
토요일 / 한국학교 오전 9시		

한인동산장로교회

NEW HOPE REFORMED CHURCH  
100 Herrmann Place, Yonkers, NY 10710  
사무실 : (914) 961-9250 / 1 (Fax 겸용)  
Website : <http://www.newhopeministry.net>

좋은 것을 품고 살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에  
소중한 무엇인가를 품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는 슬픈 기억을 품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거룩한 기억을 품고 살아가고  
어떤 이는 아픈 상처를 안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아름다운 기억을 품고 살아갑니다.  
기쁜 일을 즐겨 떠올리며 반짝이는  
좋은 일들을 되새기며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 바로  
여기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기쁨과 슬픔, 만족과 불만 중  
어느 것을 마음에 품느냐에 따라  
행복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불행한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생각입니다

맑고 푸른 하늘을 가슴에 품고 살면 됩니다.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품어도 되고  
누군가의 맑은 눈동자 하나,  
미소 짓는 그리운 얼굴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품고 살면 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당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을 품고 살면  
좋은 삶을 살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좋은 생각 中 에서—

사람이 품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뭘까요?  
돈? 성공? 사람의 사랑? 인기나 명예?

이런 것들은 그저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변하는 것일 뿐, 다 버려두고 떠나야 할 것들입니다.

모든 좋은 것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바다를 먹물로 삼아 기록한다고 해도  
그분의 가치를 완전히 다 기록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상이 크고 심오할 수록  
이전(이단)이 많다고 했던가요?

영원한 사랑~♥ 완전한 거룩함~♣  
절대적인 공의와 선함~† 참된 진실함~♣  
오직 그분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입니다.